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소전지서 강해 - 미가서**

예비된 매

(미가 6:9-16)

원로목사이종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때리실 때가 있고 싸매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읍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나옵니다(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9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 오시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 회개시킨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수 없이 많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9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부름을 받았을 때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를 경외하며 달려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8절).

“너희는 매가 예비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9절).

미가는 또한 예비된 매를 맞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매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를 맞기 전에 매의 소리를 영적으로 듣고 빨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이스라엘의 죄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10-12절).

이스라엘의 죄는 한마디로 불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거짓말투성이의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느 모퉁이에도 참과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10절).

예배는 곡식을 재는 용기입니다. 축소시킨 예배는 곡식을 다른사람에게 팔 때 속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잣대를 속여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재물이 어떤 방법으로 소득하였는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로 인해 이익을 보았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이 받을 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잠21:6).

거짓말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은 결국 그 재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재물은 바람에 불려 다니는 안개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 가리라”(잠23:5).

돈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벌어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 허무하기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같으나 실상은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니까 결국 하나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여서 번 재물은 아무리 감추어 놓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빼앗아 가십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뿐입니다(15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비된 하나님의 매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8 신임 서리 집사 면접 및 교육

오늘 오후 2시 602호

2018 신임서리집사 면접 및 교육이 12월 3일(주) 오후 2시, 602호에서 열린다. 신임서리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들은 위의 교육과 면접 장소와 시간을 참고하여 교육과 면접을 받으면 된다. 신임서리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과 격려 바란다.

다음 주 2018 섬김위원 임명 권사회 총회 · 선교회 · 전도회총회

섬김위원 임명 : 주일 I·II·III 부 예배 시

권사회 총회 : 3부예배 후, 본당 / 선교회·전도회 총회 : 오후 4시, 본당

다음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 2018년 교회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남녀 서리집사, 교구일꾼, 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등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모든 2018년도 섬김위원들은 2018년 1월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2017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또한 권사회 총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선교회·전도회 총회가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찬성 / 심명숙 김복녀 이승희 안분선 위성남 무명1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윤환(서울교회장로회)

협동목사 청빙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협동목사 한 분을 청빙키로 하였다. 이번에 오시는 협동목사는 김의창 목사로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석사(M.Div),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신학 석사(Th.M) 졸업, University of St. Andrews 철학 박사(Ph.D)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햇빛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총회 재판국 재심 개시 결정

박노철 목사는 총회 재심 판결 확정 시까지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 임직 권한, 서울교회 재정 통장 입출입 권한을 제한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00회 총회 주제 : "21세기의 교회, 다시 새심 속으로"(8:31:16-17, 2월12, 19-23)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구 대평로3길 29, 305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5211 팩스 02)6008-2882 전자 : 총연세 신앙

문서번호 : 예장총회 제102-116호
시행일 : 2017. 11. 24
수신 : 임성현 장로
참조 :
제목 : 재심개시 결정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재심 사건번호 : 제102-09호)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윤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의결 결의 무효 확인소송 진(사건번호 : 제101-07호)"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제37번(관외) 제6장(특별소송절차) 및 제2장(제심) 및 헌법시행규정 제37번(관외) 제73조(재심청구에 의거 청구와 같이 재심개시 결정)를 통보합니다.

첨부 : 총회재판국 재심개시결정(재심 제102-09호) 결.

재판국
국장이 만 규
서기 기 노 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재심 개시 결정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09호

사건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윤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의결 결의 무효 확인소송 진(사건번호 : 제101-07호)"에 대한 재심 청구

재심청구인 : (경정인)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성별 : 여, 직분 : 목사 (경정부) 서울강남노회장 김재남,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1-11 서울영등포초등학교

피재심청구인 : 1. 노윤환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1-11 서울영등포초등학교
2. 서문석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3-11 서울삼성초등학교
3. 양운장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3-11 서울삼성초등학교
4. 최광성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3-11 서울삼성초등학교

변호인 : 변호사 임성현 장로,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123-123 수원시권선초등학교

제3소송참가인 : 박노철(서울교회 위임목사)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1-11 서울영등포초등학교
변호인 : 변호사 홍종각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 서울서초초등학교

재심대상판결 : 2017. 9. 11. 선고 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 판결
결정고지일 : 2017. 11. 16.

주 문

1. 헌법관정 제129조 제5항에 의거 재심개시 결정한다.
2. 본안의 판결 확정시 까지 총회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의 효력을 정지한다.
3. 본안의 판결 확정시 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 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

※ 총회재판국 원심판결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

주 문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 (당시 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의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7년 9월 11일
판결일 : 2017년 9월 11일

재심청구의 취지

1.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개시결정과 동시에 박노철 위임목사직의 판결 효력을 정지 한다.(헌법시행규정33조4항)
2.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노회가 2011년11월8일 제49회 정기회에서(당시노회장 김학현목사)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의결결의는 유효함을 확인 한다.
3. "제3자 소송 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유효하고 그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 한다."라는 정구를 구합니다.

결정어유

총회재판국은 본 재심 청구 전에 대하여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 개시 결정한다.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국장 이만 규 서기 기 노 황 국원 오세 훈
국원 이경 현 국원 임재 현 국원 조원 현
국원 한재 양 국원 김점 동 국원 서경 현
국원 서성 현 국원 신덕 현 국원 이의 현
국원 김경 현 국원 조근 현 국원 김태 현

지난 11월24일(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개시 결정을 통보하였다.

2017년 9월11일 총회재판국의 원심 판결, 즉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8일 제49회 정기회에서 (당시 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 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에 대해서 "1. 헌법 권정 제129조 제5항에 의거 재심개시 결정한다. 2.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3.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 임직 권한, 서울교회 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고 결정하였다.

군복무자 · 입대 예정자 기도회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30/802호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인
모든 성도 ·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절 (待臨節) Advent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12월 3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강사: 김성봉 목사(한국 성서대학교)

11월 21일(화) 자기를 부인하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며 사명자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려는 자들이다. 오늘날 다수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하여 예수를 부른다. 기독교는 자기 추구, 자기 실현의 종교가 아니다.

1. 자기 십자가를 지고 -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밖에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이다. 각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분정해주신 형편과 처지가 바로 그것이다.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베드로가 서야 할 자리는 변화산상이 아니라 산 아래 삶의 현장이었다. 지금 우리의 목회 현장은 서울교회이다.

2. 나를 따를 것이니라 -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향방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벤전 2:19-21).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 부인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다.

11월 22일(수)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갈 6:2, 5)

1. 서로 다른 짐 - 우리 모두에게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다. 크고 무거운 짐은 함께 져야 할 것이고, 작고 가벼운 짐들은 각자 져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은 자기 홀로 짐을 지고 가기에 벅찬 길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권한다. 교회에는 어느 누구에게 속하는 짐인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할 그런 짐들이 있다. 사명자들은 바로 그런 짐들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다.

2.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두 종류의 사역 - 교회

안에는 말씀과 치리의 사역을 하는 목사와 장로가 있고 세속적 돌봄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집사와 권사가 있다. 목사와 장로 뿐 아니라 집사와 권사들도 목회자이다. “설교직은 단지 여러 직책들 중 하나이며 그것과 병행하여 신자의 가정 방문과 감독과 징계를 통하여 사역을 시행하는 장로직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집사직이 존재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 지리를 발전시키고 진리를 교훈하고 변호하는 교사직도 존재한다”(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524)

주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으셨다. 항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둑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81)

11월 23일(목) 이웃을 기쁘게 하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 15:1-2).

1.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인 -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한다(롬 15:1).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롬 14:1).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되 비판 없이 받아야 한다(롬 14:1). 그리고 피차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쁨조차도 타인 위주라야 한다 -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배려를 말한다. 선진 사회의 특징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요 선민이 살아갈 수준이다.

3.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 이웃에 대한 비난과 비방은 우리 입에 담을 바가 아니다. 가능한 이웃에 대하여는 칭찬하고 변호하여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침묵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다(빌 2:5, 요 5:30, 6:38).

11월 20일(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므로 사죄와 칭의와 새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다.

1. 신앙의 출발에서 - 신앙의 출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오직 성경에서 배운다.

2. 받은 자로서 - 인생의 크고 중요한 것을 다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우리는 최소한 이 질문은 해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이제 후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

3. 사명자의 자세 -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목회는 주님의 목회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목회를 위임 받은 사명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직분을 맡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직분을 맡고, 주님을 위해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롬 14:7-9, 갈 2:20).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며 살 것을 가르친다. 특히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는 더욱 배려하며 살도록 교훈하셨다. 뿐만 아니라 되갚지 못할 사람들을 대접하도록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은 사명자로서 신앙인의 예의를 갖추어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며 사회 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1월 24일(금)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3-14)

예수님의 제자들에 그 날 밤은 잇을 수 없는 밤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너무나 황송한 나머지 제자들은 내일은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에게 내일은 영영 주어지지 않았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자들은 사랑을 흉내 낼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요일 4:21).

이런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기독교의 핵심을 본다. 발씻김의 절정은 십자가상의 죽음이다.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님께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듯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살아야 한다.

-서로를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가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발 씻기는 일을 모범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다

-교회로서는 제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한다

11월 25일(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살전 5:14).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듣던 소문난 교회였다. 다른 교회에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였다. 소문의 내용은 목회자와 성도들에 관한 것이었다(살전 1:8). 그러나 소문난 교회에도 문제 있는 성도는 있게 마련이다. 문제 있는 성도란 게으른 자들, 상심하고 낙심한 마음이 약한 자들(갈방), 말씀을 듣고도 전진하는 못하는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이들만 보고 있으면 교회는 문제덩어리로 보인다.

하지만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는 이들을 감당할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들이다.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

은 집사와 권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딤후 5:10, 17). 갈방은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어떤 사람이 상심한 사람을 두 번씩이나 위로했는데 또 다시 똑 같은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일종의 역겨움, 아니 분노를 느낄 것이요 이것이 자신의 임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권를 하는 일이나 비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즉각적인 발전을 보지 못할 경우 더 이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만다”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조바심을 제지하는데 있었다.

서울교회는 우리 시대에 본이 되었던 교회이다. 좋은 소문이 있던 교회이다. 그러나 세대교체에 즈음하여 예상치 못했던 갈등을 맞게 되었다. 이 갈등을 거치며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형제자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 홀로 헤치고 나가기에 벅찬 현실일지라도 서울교회 성도들은 건전한 신앙교훈을 받은 성도답게 성숙한 성도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라(미가 7:7-9).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세움 받은 목회자들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힘입어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진 종과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자. 정리 : 허 숙 권사 (편집부)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 군병되다



최규조 집사
(Vision 2020운동
위원)

우리 서울교회는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기에 지난 토요일(17, 11/18)에 Vision 2020운동 실천에 울곡부대(예정) 제22보병사단 진중 세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 교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은 다해야 한다는 2020본부 본부장 장로님과 위원의 소명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북부중인 군인에게 시행되는 진중세례를 금년 3회차 실시하여 민족 복음화에 한발짝 다가선 기회였습니다.

새벽기도 후 안개 숲 새벽길을 38명은 대형버스로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했습니다. 10시경 동해통일전망대에 도착하니 영접 나오신 군목님과 김준기 목사님 와계셨습니다. 서울교회의 섬김으로 부흥하여 목회생활이 행복하다는 대전중앙교회에서 중식 후 사단 예배당에 도착하니 위풍당당한 대한민국 사나이! 진짜 사나이! 는 젊은 열기와 특유의 향기

가 풍겨났습니다. 예배당 전면에 “하나님께 가까이, 전우에게 가까이” 큰 글씨 아래 예수사랑, 청년사랑, 나라사랑 의미 있는 현수막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단 군목 이동호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하여 438장 찬양, 비전2020운동 위원장최광성 장로님 기도, 조경숙,김윤옥 집사님의 위식 찬양을 드린 후 사도행전 8:26~3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란 제목으로 조원영 지도 목사님의 설교로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 믿는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 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 했습니다.

장병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서도 찬양과 설교 시간 중간 중간 패기와 열정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접기도와 세례문답하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후 세례예식을 서울교회 장석남 목사님 집례로 5분 목사님과 5분장로님께서 훈련병 123명에게 세례식을 하셨습니다.

염속한 가운데 143장 찬양하며 모두가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감사하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인도자가 축하인사하며 세례 받았으니 예수를 최고 사령관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 하라고 영적 감성을 주입시키는 말씀으로 권면하니 그들의 경청은 진지하였습니다.

인사 말씀과 서울교회에서 준비한 한아름 세례 축하선물(포켓용 성경책, 십자가 목걸이, 물티슈, 클렌징폼, 샴푸 등 세면용품)과 간식(햄버거, 콜라) 감사 광고에 환호성과 휘바람 소리... 저렇게나 좋을 까...

축하와 수고의 감사 인사로 화답하고 우리의 사명인 복음의전도 씨뿌리며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는 황금 어장임을 몸소 실천하고 교회에 도착하니 저녁 8시반경이었습니다.

세례 받은 훈련병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군 복무하는 동안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앞장 서는 자랑스런 십자가 군병으로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① 지난 주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 찬양 『열렸다! 하늘문이』
 ② 『열렸다! 하늘문이』 작사자 이종운 원로목사
 ③ 『열렸다! 하늘문이』 작곡가 박정선 은퇴장로
 ④ 몸이 불편한 중에도 지휘하신 류중기 집사
 ⑤ ⑥ ⑦ ⑧ 사랑부의 『제 10회 천사들의 음악회』
 ⑨ 유·초등부가 만든 우리교회 모형
 ⑩ 유아·유치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든 교회 생일 축하 케이크와 축하 메시지
 ⑪ 중등부는 학생들이 가져온 과일, 채소를 가지고 『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일본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호산나대학에서 찾다

지난 11월 23일 야마토 대학(大和大学), 산티즈쿠바학교(サンティツクバ) 교수, 교장, 교사 3명은 호산나대학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호산나대학을 롤 모델로 삼고자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라카토 히로미치 교수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해오신 후나바시 히데히코(산티즈쿠바 교장), 쿠바타 코우사쿠(야마토대학 교수) 두분께



호산나대학을 추천하여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호산나대학이 갖춘 전공수업의 전문성과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놀라움을 발견했으며 일본과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일본에 하루빨리 전파하여 자리잡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후나바시 히데히코 교장은 "두 기관이 지속적인 학생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발달장애학생들과 다시 방문하겠습니다"라며 약속을 전했습니다.

호산나대학과 산티즈쿠바학교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습니다.

교회 주차장 사용 안내

수요예배, 찬양예배 후 신속한 출차

수요예배와 주일 예배 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주차하고 있다.

다만 수요예배와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후 주차장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지상으로 옮겨주기 바란다.

Bus Metro Walking

운동에 동참합시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9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 사업회 해단식을 갖는다.

■ 득녀 : 11교구 채규재 성도 안서연 성도 (안홍희 집사, 전화진 권사 장녀 가정) 11월 30일

■ 김용진 선교사(말라위) CTS 방송 출연 안내 - CTS 내 가매일기쁘게 반방 12/5(화) 오전 9시20분, 재방 12/5(화) 오후 6시, 삼방 12/8(금) 새벽 1시40분

■ 금주의 식사 : 정국주 집사 김미영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호산나대학, 애견관련 학부모 기부금 이어져



연천지역 발달장애 학생들이 애견케어 체험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

호산나대학 애견관련 시설 보장을 위한 학부모 기부금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1,300만원 기부되었고 최근 학부모회에서 300만원, 이지원 학부모님이 1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호산나대학의 좋은 환경에 애견관련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자녀들의 장애에 대한 희망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산나대학은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기부금을 기반으로 애견관련 교육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견 간식 생산시설, 애견호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호산나대학에서 반려견을 돌봐드립니다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에서는 12월부터 애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 중 애견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호산나대학에 맡기시면 정성껏 돌봐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 환 경 : 실내 냉·난방시설, 애견당 1개의 방(넓은 공간), 천연잔디 구장, 넓은 산책로, 샤워 및 드라이룸 시설을 갖춘, 서울에서 50분 거리
2. 먹 이 : 체형에 적합한 최상의 사료 제공, 수제간식 제공 (견주가 가지고 오셔도 됨)
3. 비 용 : 1일 20,000원(오전8시30-오후5시), 1박당 20,000원 추가, 장기투숙 가능함
4. 픽 업 : 오전 8시30분 대치역 2번 출구 서울교회 앞, 오전 8시40분 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 앞, 오후 4시30분 종합운동장역 하차 오후 5시 서울교회 앞 하차
5. 예약 및 문의 : 최소 2일전 전화 예약 상담 (031-585-9184, 호산나대학)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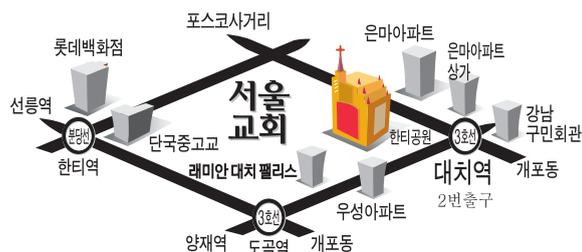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사명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3.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분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 스트민 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분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